



“예향 광주에 자부심 시민과 교감 늘릴 것”

최태지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이 19일 오후 광주시 남구 양림동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신임 감독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찾아가는 공연, 해설이 있는 발레 등을 통해 관객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작품을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주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발레단을 만들고 싶어요.”

광주시립발레단 최태지(58) 신임 예술감독은 19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 예술감독으로서의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재일교포 출신인 최 신임 예술감독은 1983년 일본 가이타리발레단 활동을 시작으로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와 지도위원을 거친 뒤 1996년 37세에 최연소 국립발레단장에 취임했다.

2001년까지 연임한 그는 이후 각종 발레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으며 2008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립발레단을 다시 이끌었다.

최 신임 예술감독은 한국발레협회 프티마 발레리나상(1996년), 한국발레협회 공로상(2001년), 러시아 페를 아라베스크 콩쿠르 최고지도자상(2009년), 옥관문화훈장(2011년), 올해의 여성대상(2017년) 등을 수상했다.

최 신임 예술감독은 “광주에서의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다”며 “국립발레단의 명함을 내려놓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에 한국에 들어와 계속 발레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2013년도에 국립발레단을 떠났을 때 여러 곳에서 함께 하지는 부탁이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었다”며 “하지만 광주시립발레단원들이 나

최태지 신임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구성원 지지 감사... 초심 지킬 것

국립발레단 시절 광주 출신과 호흡

해설이 있는 발레 등 작품 다양화

단원 성장 발판·지역 교류 확대

를 단장에 추천했고 그들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마음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임명장을 받았을 때, 1996년 처음 국립발레단 위촉장을 받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위촉장을 받았었죠.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광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주시립발레단은 다른 단체와 다르게 청빙제를 통해 예술감독을 선출했어요. 저와 전혀 관계가 없던 광주라는 도시의 시립예술단체 단원들이 수많은 회의 끝에 저를 예술감독으로 추천했다고 들었어요.”

재일교포였던 최 감독은 광주와는 특별한 인연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광주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도시라고 강조했다. 87년도 국립발레단에서 발레리

나로 활동할 때 무용수 70% 이상이 광주출신이었거나 국립예술감독 시절 부예술감독으로 호흡을 맞춘 문병남씨도 광주출신이었다.

“광주출신 무용가들은 열정이 넘칠 뿐 아니라 저마다 끼가 대단하다”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그들을 통해 예향도시 광주의 저력과 자부심을 느껴왔다”고 덧붙였다.

최 감독은 앞으로 국립발레단 시절 추진했던 해설이 있는 발레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첫 공연은 12월13일 열리는 ‘호두까기인형’ 공연이며 내년 라인업도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발레가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매달 2차례 소극장 공연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이어 “창작발레도 구상하고 있다”며 “창극단, 관현악단 등 8개의 예술단체와의 협업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최 감독은 발레는 20~30대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30대 중반, 35세가 발레리나로서는 제일 좋은 시기다. 많은 무대가 만들어지면 단원들도 다양한 작품을 접하게 되고, 서울 등 예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단원들에게도 기회를 줄 생각이다.

“관객이 없는 공연장은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객, 시민과 교감할 수 있는 무대를 통해 광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발레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발레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스크린으로 만나는 코리안심포니 27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은 ‘삭온스크린’ 9월 행사로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Spirit of Beethoven’ 영상(사진)을 상영한다. 27일 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삭온스크린’은 다양한 각도에서 10대 이상의 카

메라로 촬영된 초고화질 영상을 생동감 있게 편집해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서울 예술의전당 영상화 사업으로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 수준 높은 공연들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영상은 2014년도 193회 정기연주회 공연 실황으로 코리안심포니의 상임지휘자인 임현정의 지휘 아래 피아니스트 김다솔 씨가 함께한다. 이번 무대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와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영상으로 감상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선착순 예약으로 100명을 초대한다. 문의 062-670-7931.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창극단원 대통령상 잇따라 수상

김연옥 ‘임방울 국악제’·방윤수 ‘전주대사습’

광주시립창극단 단원들이 최근 열린 국악대회에서 잇따라 대통령상을 수상, 화제다. 김연옥(39)씨는 지난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1에서 열린 제25회 ‘임방울국악제’ 판소리 명창부문에서 대통령상(상금 4000만원·순금 트로피)을 수상했다. 김씨는 ‘심청가’ 중 심봉사가 죽은 심청을 그리워하며 통곡하는 대목을 그린 ‘타루비’ 대목을 불러 영예를 안았다.



김연옥씨



방윤수씨

조소녀, 성창순, 전인삼 명창을 사사한 김씨는 중요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 이수자로 전남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1999년 창극단에 입단했다. 임방울국악제 제22·24회 명창부 준우수상, 제23회 명창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김씨는 올해로 네 번째 도전 끝에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씨는 “국악인으로서 매우 영광스럽다. 열정과 끈기가 성과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소리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방윤수(46) 단원은 지난 11월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43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 부문에서 ‘흥보가’ 중 ‘흥보 매 맞는 대목’을 불러 대통령상(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방씨는 이날 경연에서 전문심사단 평가와 함께 최초로 도입된 청중평가단 평가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다.

방씨는 강도근, 성창순, 전인삼 명창을 사사했으며 1999년 창극단에 입단 후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초빙교수, 국악나라 에그리나 대표 등으로 활동중이다.

방씨는 “가족과 광주시립창극단의 지원을 받아 가능한 일이었다. 감사한 사람이 많다”며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여 광주와 국악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립창극단은 1989년 창단돼 한국음악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찾아가는 공연’과 ‘국악 교실’ 등을 운영중이다. 문의 062-613-8349. /전은재기자 ej6621@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미디어아트 드림’

모금 통해 마련...21~23일 무등음악원 등

문화사각지대에 찾아가 미디어아트 공연을 선보이는 ‘미디어아트 드림(Dream)’이 시민들의 소중한 모금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미디어아트 드림(Dream)’은 문화예술 미디어아티스트 그룹 빅풋(BIG FOOT)이 마련한 공연으로 문화사각지대를 방문, 미디어아트의 빛으로 꿈과 희망을 선물한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다.

공연은 21일 무등음악원플드락(오후 6시30분), 22일 발산마을(오후 6시30분) 그리고 23일 고령인마을(오후 6시30분)에서 빅풋의 트레이드마크인 ‘빅풋’ 조형물 시연과 함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무등음악원플드락 공연은 아이들 대상으로 미디어아트 장비로 체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발산마을 공연은 광주청년 대상으로



미디어아티스트 그룹 ‘빅풋’ 조형물

미디어아트 디제인쇼가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고령인마을에서는 고령인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미디어아트 공연을 선보인다.

한편 이번 ‘미디어아트 드림(Dream)’은 ‘2017문화예술평년프로젝트 만세만세 만(萬)만(滿)계’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됐다. 문의 062-670-795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